

중소형주 강세 전개



[Market Analyst] 최준수 수석연구원 ☎ (02) 3772-1964 ✉ junechoi1@shinhan.com

KOSPI는 방향성 부재, 중소형주 상승으로 상승 종목수 증가

KOSPI는 2,500p 후반대에서 방향성 탐색 중. 원/달러 환율 상승 전환과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 심리 작용. 업종단에서는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둔화된 영향. 긴축 경로에 영향을 주는 고용, 물가, Fed 인사의 발언 반영하며 5월 FOMC 25bp 인상 확률이 굳어짐. 주식시장이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인식. 대형주보다 개별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가 선호되는 배경. 종목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수급 상황은 개선. KOSDAQ은 IT업종 반등에 더해 2차전지 밸류체인 주가가 방향성을 결정. 외국인은 KOSDAQ 3거래일 연속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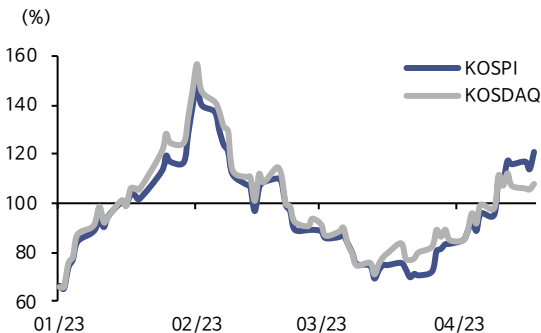
조선, 건설, 유틸, 중국소비, 금융 등 소외 업종 중심 상승

대형 반도체, 2차전지 주가 흐름이 둔화되면서 조선, 건설, 유틸, 중국소비, 금융 등 소외 업종의 상승. 개별 재료 영향이 크고 일부 소형주의 '테마 유키'에 의한 급등세도 특징. 1) 조선: 공정위의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유력 소식과 국내 업체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 가능성 등 수주 호조 기대 작용. 2) 유틸리티: 미국 상무부가 원가 이하 전력 공급을 보조금 문제로 제기하면서 유틸리티 가격 인상 압박에 상승. 3) 방산: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시사와 방산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 4) 헬스케어: 주가 상승 재료 부재 가운데 수급 분산 영향에 하락

다음주 미국 기술주 실적으로 지수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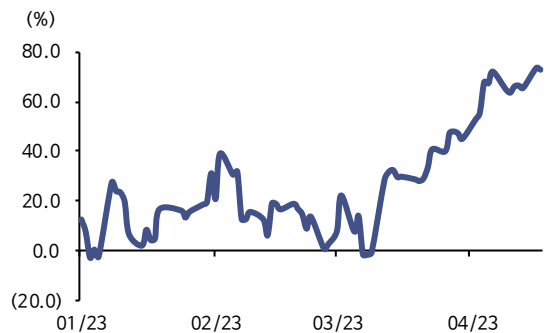
통화정책 변수는 대부분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 한국 IT의 전방 산업인 미국 기술주 실적 발표로 지수의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 향후 업황에 대한 판단과 투자 계획이 포인트. 지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개인 및 외국인의 수급 유입에 따른 지수 방어력 여부에 주목. 최근 중국 실물지표 호조가 위안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계수도 반등하며 환율이 외국인 수급 유인이 될지 지켜볼 필요

KOSPI 및 KOSDAQ 등락 비율 추이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원/달러-위안/달러 환율 상관계수



자료: KOSCOM, 신한투자증권 / 주. 20일 누적 기준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유준).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권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